

국제질서의 전환기, 무엇을 가르치는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서술 변화

고혜림* · 최윤정**

요약

본 연구는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사회2」 교과서 각 4종, 총 8권에 수록된 국제사회 관련 서술의 변화 양상을 양적·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학교 ‘사회’는 국제정치라는 지식·이해 범주에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및 국제 문제와 분쟁에 대해 다루는 공통·필수 교육과정으로서의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 국제정치의 3개 주요 이론-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서술하는 관점과 내용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양상을 분석·시각화 한 후, 질적 근거 검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경향성 및 변화를 탐색하는 데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는 교과서라는 창을 통해 학생들이 마주하는 국제사회의 모습과 국제정치에 대한 서술의 실제 및 변화를 실증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국제정치 관련 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국제정치, 국제사회, 사회과교육, 교과서, 텍스트 마이닝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교육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사범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제1저자), yko1010@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교육과 교수(교신저자),
yoonjung.choi@ewha.ac.kr

I. 서론

21세기 국제사회는 금융위기, 팬데믹, 난민과 같은 초국가적 위기와 더불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더욱 격화된 패권 국가들의 갈등으로 불확실성과 국제질서의 구조적 위기에 맞서고 있다(Ikenberry, 2018). 2025년의 대한민국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을 포함하여 반도체, 배터리,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이코리아, 2025.09.29.).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세계화와 초연결주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확산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이어오던 국제사회는, 패권 전환기에서의 현실주의 질서를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Mearsheimer, 2019: 17).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더 이상 나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둘러싼 가장 주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할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구촌 공동체와 같은 추상적 관념을 차치하고서라도 투자, 세금, 취업, 유학, 군복무와 같은 개인의 권익과 실리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제이슈들이 다양한 플랫폼의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공론화되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SBSBiz, 2025.10.01.). 이러한 상황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목표, 분야, 내용을 포괄하는 사회(과)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현재성이 높은 국가·세계의 현안을 교실 수업에서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와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국제질서의 전환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및 이에 따른 신규 교과

서 편찬 등 학교 교육의 변화와도 맞물려 국제사회를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 모두에 재정비를 요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었으며(교육부, 2021: 12),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제시한다(교육부, 2022a: 5). 사회과에서는 ‘세계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등의 자질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국경의 경계를 확장하는 시민교육의 비중이 강화되었다(김현미, 2023). 사회과 교과서는 따라서 단순한 교수·학습자료를 넘어 국제정세의 변화 및 글로벌 규범과 가치, 담론이 학교 교육에 어떻게 반영 및 재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다(Jimenez et al., 2017; Meyer, Bromley and Ramirez, 2010).

본 연구는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사회2」 교과서들에 수록된 국제사회 관련 서술의 변화 양상을 양적·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학교 ‘사회’는 ‘국제정치’라는 지식·이해 범주에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및 국제 문제와 분쟁에 대해 다루는 공통교육과정으로서의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서술하는 관점과 내용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양상을 분석한 후, 질적 근거 검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경향성 및 변화를 탐색하는 데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는 교과서라는 창을 통해 학생들이 마주하는 국제사회의 모습과 국제정치에 대한 서술의 실재를 실증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현상과 국제질서, 국제사회의 주체와 행동 양식, 국제규범과 제도의 작동 방식 등을 이해하는 주류 패러다임이자 대표적이고도 독자적인 해석의 체계이다(신기욱 외, 2022; 유현석, 2025; Armstrong et al., 2012). 이 장에서는 각 이론의 내용과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텍스트 마이닝에서 사용한 키워드 도출 및 양적·질적 분석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실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전통 이론 중 하나이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불신과 경쟁 속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상태이며,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력 및 경제력을 강화하고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김상배, 2008; 유현석, 2025; Morgenthau, 1948; Waltz, 1979). 현실주의는 따라서 협력보다 경쟁이 구조적으로 앞서서 국제정치학의 갈등과 전쟁, 동맹 관계의 변화, 패권 경쟁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현실주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역

시 자국의 상대적 힘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협력과 제도의 역할, 국제기구, 개인 등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이상주의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국제기구의 설립, 민주주의의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 등의 요인을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본다(Doyle, 1986; Keohane & Nye, 2012). 국제규범과 국제법, 제도나 여론 등을 통한 국제질서의 유지 및 안정 가능성을 옹호하고, 민주국가 간은 낮은 전쟁 가능성을 주장하기에 현실주의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김기정, 2019: 100-104; 신기욱 외, 2022: 62-66). 그러나 최근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전망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의 소극적 작용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 현상은 그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유현석, 2025: 50-52).

구성주의는 국제정치를 물리적 힘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질서로 상정한다. 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전통성에 비해 신생 이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정치의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여 주류 패러다임으로 포함되고 있다(김학성, 2022; 문돈, 2011).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국가들의 정체성, 사회적 상호 및 의미작용,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변화할 수 있고(Wendt, 1992), 동일한 상황도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 따라 국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신기욱 외, 2022: 75-80). 일본이 자위대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면 한국과 중국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 역량 함양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관점은 그렇기에 인권, 기후변화, 세계시민성 등을 다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패

러다임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가지 패러다임이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속 국제사회 관련 내용에서 얼마나,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분석하였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국가 공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국제정치 관련 내용을 탐구한 사회과교육의 주요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은 사회적·정치적 산물(Apple, 2019; Foucault, 1972)이라는 오랜 의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국제사회를 다루어 온 방식 및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은지용, 2023). 군부독재의 종식과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한국 교육과정은 1990년대 이후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국민에서 시민으로”(김영석, 2013: 15)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제화, 정보화, 통일 등에 대한 관심의 지평과 내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Choi & Kim, 2020).

국제사회의 변화와 글로벌 이슈, 세계시민성을 다루는 영역이나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 및 내용 구성상 일반사회 영역의 정치, 특히 핵심 개념 및 지식·이해 요소로서의 국제정치에서 이를 주로 반영해 왔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공통 교육과정 기준, 국제정치 범주에서 관련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괄하였다(<표 1> 참조). 제7차 교육과정(1997)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사이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어 개별 과목으로 운영되던 ‘국제정치’

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의 심화 과목으로 재편되기도 하였다(최윤정, 윤노아, 2023: 47).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국제 관계의 이해’는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제 관계의 역사적 변천,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관점과 다양한 행위 주체, 국가 간 불평등 및 평화와 안전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는 국제정치 영역의 심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22b: 240).

<표 1> 2015·2022 개정 사회 교과 단원 구성

구분	내용 요소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2015 일반화된 개정 지식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제 질서도 복잡해지고 있다.	-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남북통일	국제 사회, 외교,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2022 핵심 개정 아이디어	국제 사회에는 여러 행위 주체가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 지구촌의 평화	· 국제 사회의 주체와 특징 · 국제 사회의 분쟁과 시민의 역할 · 우리나라의 국제 문제와 대응 방안

*출처: 교육부(2015: 5, 2022b: 12)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속 관련 내용을 탐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국제사회, 세계시민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서술의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강대현, 송민섭, 송미리(2023)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이 세계화, 상호의존,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리 영역에서 또한 세계시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강조되었다고 밝힌 김현미(2023)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학교 사회 전반에서 자국과 국제사회의 연계에 대한 주목도 및 중요도가 함께 높아진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사회 영역에 제시된 국제정치 단위별 질문이 제한적임을 밝히고, 해석과 관점, 공감 등 종합적 이해와 사고 확장을 위한 핵심 질문 설계를 제안한 연구도 존재하였다(구정화, 2023).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된 편제와 더불어 국제정치 교육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었다. 기존 ‘정치와 법’으로 편제되어 온 과목이 법교육과 분리되어 ‘정치’ 단일 과목으로 독립하였고, 민주주의-시민 참여-정부 형태-국제정치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김명정, 김현경, 2022). 또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국제 관계의 이해’가 국제정치·경제·법 등 국제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명정, 박정서, 2023).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동향이 확인된다. 교과서에 나타난 국제정치 관련 내용은 단편적 사실과 현상의 나열(김홍탁, 2022), 국제사회의 이슈 및 국제 협력의 구체적 사례 제시의 부족(유명철, 2018), 가치·태도 변화의 분절적 연계(김경수, 김석우, 2009)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팬데믹, 인공지능, 기후 위기 등의 쟁점이 새로운 의제로 다루어지고(강은진, 황미영, 박선운, 2025), 글로벌·글로벌 인식의 전환이 발견되며 교과서 서술과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남호엽, 2014).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사회2」 교과서 각 4종, 총 8권에 수록된 국제정치 영역의 국제사회 관련 단원이다.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중 교육부 검정을 받은

<표 2> 2015·2022 개정 「사회2」 교과서 단원 구성

2015 개정	2022 개정
1. 인권과 헌법	1. 헌법과 국가기관
2. 헌법과 국가 기관	2. 경제생활과 선택
3. 경제생활과 선택	3. 시장과 가격
4. 시장 경제와 가격	4.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5.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5. 국제사회와 한반도
6.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6.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7.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7.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
8.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8.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9.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9. 중부 지역
10.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0. 남부 지역
11. 세계 속의 우리나라	11. 북부 지역
12. 더불어 사는 세계	12. 지속가능한 세계와 글로벌 시민

2015 개정 시기 8종, 2022 개정 시기 5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2개 교육과정 시기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비교 분석이 가능한 동일 출판사 4종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의 6단원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와 2022 개정 교과서의 5단원 ‘국제 사회와 한반도’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표 2> 참조).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정량 분석인 단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텍스트 네트워크(text network) 시각화 분석이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요약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구조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량적 연구 기법이다(김재우, 김동진, 2019; 한미경, 윤다인, 최윤정, 2019). 단어 빈도 분석은 특정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해당 텍스트가 강조하는 개념과 주제어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고경민, 남재우, 2025), 교과서와 같은 문서 자료에서 핵심 개념의 분량 및 분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망으로 표현하여 구조화하는 분석 방법이다(오지은, 2020). 교과서는 문서 구조가 명확하고 교육 목적이 분명하여 자주 반복거나 연계되어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은 교육의 강조점이나 이론적 지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에, 텍스트 마이닝은 본 연구에 적절하고 타당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교육 연구에서도 의미 연결망 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

텔링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과 의미를 정량적·구조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성(이동민, 2014), 노동인권(한미경, 윤다인, 최윤정, 2019), 다문화(박세훈, 장인실, 2018), 가야사(정선화, 2022) 등 다양한 분야의 시계열에 따른 교육 동향과 거시적 흐름의 변화가 실증적 근거를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 이론의 3가지 주요 패러다임이자 교과서 분석의 틀이 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키워드 사전 구축 작업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해외 대표 학자들의 원저를 바탕으로 각 이론을 특징짓는 핵심 개념과 용어를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국제정치 번역서 및 개론서 20권을 대상으로 핵심 개념을 확인·검토하였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최소 한 개의 장으로 다루며, 2000년대에 출간되어 최신 이론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저서들을 선정하고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학교 「사회2」 교과서 분석 단원을 대상으로 1, 2차에서 도출된 학술 용어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사용·변용되는지 문맥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키워드 및 추출 단계는 <표 3>과 같다.

둘째, 분석 대상의 전체 텍스트를 교과서 PDF 파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는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고, 조사·어미·의존명사 등 불용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셋째, 사전화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고, 빈출 개념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Python 기반의

KoNLPy 형태소 분석기 및 panda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각 이론별 키워드 빈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이론별 키워드의 상대적 비중과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넷째, 문맥 기반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문장 내 공출현(Co-occurrence) 기반 연결망 분석 방식으로, 키워드들이 한 문장 내에서 어떤 키워드 및 단어와 자주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시각적 그래프로 제시함으로써, 교과서에 나타난 국제사회 내용 구성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계량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고 질적 근거를 검증하였다. 2015·2022 개정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 문장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범주화하였고, 동일한 키워드가 어떠한 맥락과 사례 속에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정량적 분석 결과와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비교하였다(Creswell, 2021). 2015·2022 개정 교과서 전체를 대표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2」 교과서에 반영된 국제사회에 대한 서술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관점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변화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무엇이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4종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표 4>는 핵심 키워드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191회)가 전체 빈도수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제정치의 서술 방향이 자유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 2015·2022 개정 교과서 출판사 이론별 키워드 빈도

이론별 키워드	2015 개정 출판사					2022 개정 출판사					
	A	B	C	D	합계	A	B	C	D	합계	
현실주의	안보	1	5	0	1	7	12	1	7	7	27
	힘의 논리	3	3	3	2	11	4	3	1	1	9
	자국의 이익	9	9	6	16	40	14	8	5	6	33
	합계	13	17	9	19	58	30	12	13	14	69 (▲11)
자유주의	협력	21	31	29	29	110	17	13	20	15	65
	국제기구	20	20	17	18	75	14	8	13	20	55
	상호의존	1	1	1	3	6	3	0	1	0	4
	합계	42	52	47	50	191	34	21	34	35	124 (▼67)
구성주의	규범	0	0	2	1	3	0	2	4	0	6
	여론	0	0	1	1	2	1	0	3	0	4
	세계시민	0	0	0	15	15	3	9	18	6	36
	합계	0	0	3	17	20	4	11	25	6	46 (▲26)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자유주의 빈도가 124회(약 52%)로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주의, 구성주의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현실주의는 69회(약 29%), 구성주의는 46회(약 19%)로 2015 개정 교과서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구성주의 키워드는 2015 개정 대비 약 2.5배 증가하며 2022 개정 교과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5·2022 개정 교과서의 키워드별 변화를 나타낸 <표 4>에 따르면, 2022 개정 현실주의에서는 ‘안보’의 빈도가 크게 증가한 동시에, 자유주의에서는 ‘협력’은 대폭 감소하며 자유주의 관점의 축소를 견인하고 있다. 구성주의 키워드는 2015 개정 교과서에 비해 26회 증가하며 높은 증가를 보이고, 특히 ‘세계시민’의 등장 빈도수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출판사별 변화를 살펴보면, 현실주의 키워드는 2015 개정 교과서에 비해 2022 개정 교과서의 A, C 출판사에서 증가하였고, 자유주의 키워드는 모든 출판사에서 감소하였다. 구성주의 키워드는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일부 출판사에서,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모든 출판사에서 등장하였고 B, C 출판사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구성주의 키워드를 다룬 D 출판사는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유일하게 빈도수 감소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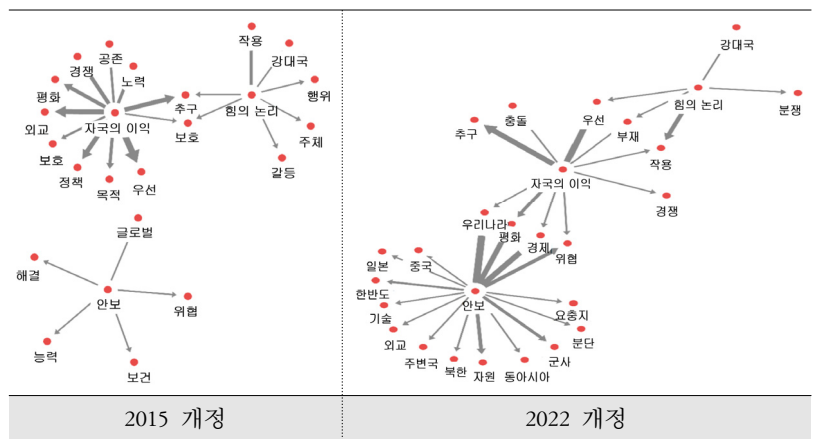
2. 무엇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5·2022 개정 교과서에 서술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공출현 네트워크를 분석·시각화하였

다. 문장 안에서 키워드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에 더해 교과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변화를 조명하여 교과서 속 국제정치 서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실주의: ‘국제 안보’에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로

[그림 1]은 2015·2022 개정 교과서에서 현실주의 키워드의 시각화 결과 분석을 비교한 것이다. 2015 개정 교과서보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 키워드 간 연결 강도가 강화되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이익’, ‘힘의 논리’가 연결되었고, ‘안보’는 독립적인 의미 단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안보-자국의 이익-힘의 논리’가 서로 다른 단어들과 함께 상호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현실주의의 시각화 결과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자국의 이익-힘의 논리’를 매개하는 단어로 ‘부재, 추구’ 등이 나타난다. 이는 중앙정부가 부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자국의 이익-힘의 논리’는 ‘우선, 부재, 작용’과 함께, ‘자국의 이익-안보’는 ‘우리나라, 평화, 위협, 경제’과의 연결을 보이며,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시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심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대응은 2022 개정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등의 ‘주변국’과 한반도의 ‘분단’ 현실은 현실주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에서 ‘위협’, ‘글로벌’, ‘보건’ 등 주로 일반 안보 및 지구적 차원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 ‘자원’, ‘기술’, ‘무역’도 2022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 단어이다. 2022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현실주의의 서술이 경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한 복합 안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교과서 맥락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2015 개정 교과서 본문에서는 ‘안보’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협보다는 국제사회가 공동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 안보의 구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안보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으며, 미국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교과서, 2022,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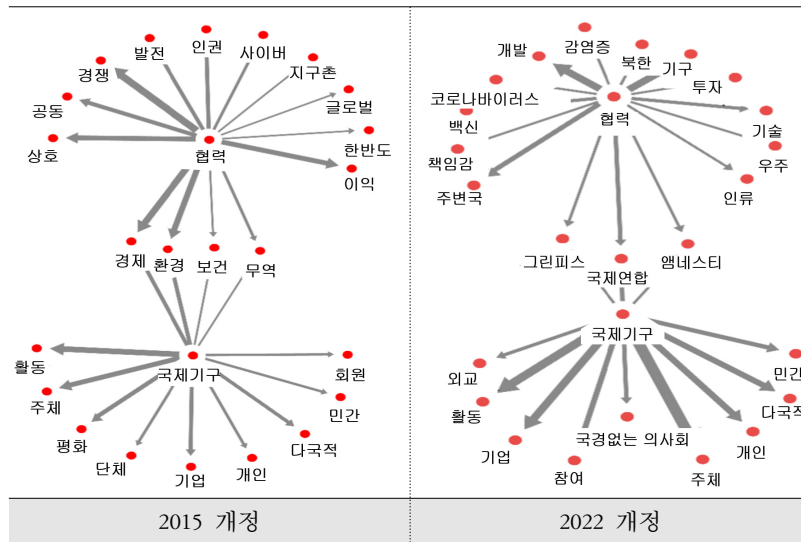
본문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2015 개정 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과 감염병 등의 보건 안보 등에 대한 내용이 탐구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2022 개정 교과서의 탐구활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 평화 위협이 국제 문제로 제시되며, 안보가 보다 현실적·직접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로 나타난다.

2) 자유주의: ‘추상적’ 협력에서 ‘구체적’ 협력으로

[그림 2]는 2015·2022 개정 교과서의 자유주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 시기 모두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 협력 분야 및 주체의 범위와 구체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협력’은 ‘인권, 사이버’와 같은 ‘지구촌 및 글로벌’ 수준의 국제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반면, 2022 개정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구체성과 영역의 확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2022 개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협력’과 공출현하며 협력이 구체화 되었고, 2022 개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 투자, 우주’는 국제 ‘협력’ 분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서술도 변화를 보였다. 2015 개정 교과서에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의 활동과 ‘평화’가 주요 공출현 개념으로



[그림 2] 자유주의 시각화 결과

등장하여 공공 차원에서의 강조점을 유추할 수 있다면, 2022 개정 시기에서는 ‘다국적’, ‘기업’, ‘민간’ 등과 언급되며 시장의 자유 관점 중심의 서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협력-국제기구’를 잇는 단어에서도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 ‘환경, 보건, 무역, 경제’ 등 ‘협력’의 대상 또는 영역이,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린피스, 국제연합, 앰네스티’라는 협력의 행위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문맥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 자유주의와 관련된 서술은 두 시기 모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과 평화 추구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지만, 2022 개정에서는 그 행위 주체와 협력의 범위가 구체화 및 확장되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도 ‘협력’은 상호 이익과 공존을 위해, 공동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

로 서술되고 있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협력’이 다양한 국제기구 혹은 행위 주체들의 명칭과 역할과 함께 제시되며, 글로벌 이슈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활동해
보자

국제 사회의 특징 알아보기

비판적 사고력 ●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다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국제 인권 기구인 국제 엠네스티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라며,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이 필요한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JTBC』, 2020. 12. 9.

자료 2 주요 20개국(G20) 보건 장관들이 로마에서 회의를 열어 가난한 국가에 보건·경제 지원을 늘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을 공평하게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은 ‘로마 협정’에 합의하였다. - 『뉴스1』, 2021. 9. 8.

자료 3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운동에 1억여 원을 기부하며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문화일보』, 2021. 4. 20.

자료 4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백신 불평등 문제가 떠오르면서 세계 백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공급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의학신문』, 2022. 11. 9.

1 **자료 1** ~ **자료 4**와 관련 있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국가 다국적 기업 국제 비정부 기구 영향력 있는 개인 정부 간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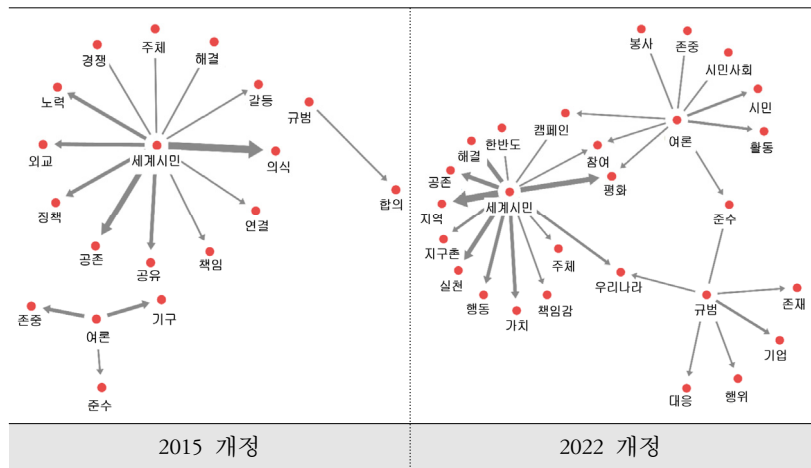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그림 3] 2022 개정 교과서 ‘협력’ 관련 자료(D교과서(p.83))

3) 구성주의: 글로벌 ‘인식의 주체’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그림 4]는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과서의 구성주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이다. 2015 개정에서는 세 키워드 간 직접적 연결이 나타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등장한다. 2022 개정에서는 키워

드 간 연결 및 네트워크의 다양화가 나타나며, ‘참여’와 ‘실천’ 중심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집중 등장한다.



[그림 4] 구성주의 시각화 결과

국제사회를 국가의 물리적·제도적 힘보다 사회적 규범, 인식과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구성주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기 후위기, 평화, 인권 등의 초국가적 규범과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한 주체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과 깊이 맞닿아 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세계시민’은 ‘공존, 의식, 주체, 책임, 해결, 노력’과 연결을 보인다. 2015 개정에 나타난 ‘세계시민’은 국제사회에서 ‘공존 의식’을 지닌 ‘주체’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가치·태도적 측면의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2 개정의 ‘세계시민’은 ‘공존 의식’과 ‘책임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지구촌’을 넘나들며, ‘참여, 해결, 행동, 실

천'의 '주체'로 기능하는, 행동적·실천적 세계시민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천의 영역과 방법은 '세계시민-여론'의 매개 단어인 '캠페인', '참여', 그리고 '여론'과 연결성을 보이는 '시민사회, 시민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특별히 '세계시민-규범'의 연결에서 '우리나라, 대응' 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책임 및 규범 형성 과정과 관련한 서술도 살펴볼 수 있다.

교과서 본문과 자료에서도 시기별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세계시민'을 주로 국제사회 공존을 위한 인식적 태도를 다루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 및 글로벌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의 참여·실천적 세계시민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국제 사회는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D교과서, 2015, p.112)

[그림 5]는 연대와 공존을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학생들이 직접 구체화해 보는 학습활동 자료이다.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행위 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의미와 담론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활동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함께 해보자 평화와 공존을 위한 캠페인 기획하기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창의

- 모둠별로 최근 발생한 국제 사회의 분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캠페인 기획안을 만들어 보자.

- 1**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 국제 분쟁
 -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2** 관심을 가진 까닭
 - 예) 과거에 소련이라는 한 국가에 속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생각났다. 전쟁의 참상과 여파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었다.
- 3** 캠페인을 통해 촉구하고 싶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
 - 예)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전쟁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글을 쓰고 해시태그(#) 달기
 -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 소개 및 후원하기
- 4** 캠페인의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 방법
 - 예)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을 보여 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지구촌 평화 온라인 서명 운동 참여하기

[그림 5] 2022 개정 교과서 '세계시민' 관련 자료 (C교과서(p.97))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사회2」 교과서들에 수록된 국제사회 관련 서술 양상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교과서에 서술된 국제사회 주요 담론이 사실과 내용 지식의 전달을

넘어 교육과정 시기와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제기구의 행위 주체와 상호 협력, 평화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던 교과서 서술 경향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가이익, 국제 안보, 패권 국가들의 경쟁 등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면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우세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동아시아 지정학 등의 국가·지역 중심 안보 담론이 확대됨이 특징적이었다. 동시에 세계시민 - 실천 - 활동 - 참여의 의미 연결망으로 확인되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강조와 구성주의 담론의 확장도 나타났다. 시각화 결과는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개념 간 연결 구조 및 담론의 변화를 질적 분석과 함께 직관적, 다층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연구 결과는 국제정세의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는 담론적 매개체, 역동적 의미 체계로서의 사회과 교과서의 성격과 역할을 보여준다.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국제사회 관련 단원은 시기별로 맥락적·특징적·상징적 국제 이슈를 중심으로, 상이한 정치적·담론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중·러를 중심으로 한 패권 국가들의 힘의 경쟁, 안보 및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현실주의 국제질서가 우세한 가운데, 국가 간 협의와 연대에 기반한 다자주의의 붕괴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는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 양상,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와 같은 국제 문제가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서술·재구성되는 양상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에게는 정답이 있는 개념과 이론을 압축적

으로 담은 암기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왔고, 학계에게는 현실 사회와 학생들의 삶과 괴리된, 현재성이 결여된 전통적 학습 매체로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강대현, 은지용, 2020). 이를 고려해 보면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변동과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는 개방성, 유동성, 현재성을 사회과 교과서에서 발견한 점은 일면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안고 있다. 개념과 단문 위주의 표준화·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교과서 서술의 특성상 계량적 분석을 통해 담론의 심층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였다. 질적 근거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병행하였으나, 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3개 이론에 주목하여 보다 다양한 이론의 반영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비판이론 및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대안 이론들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가진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내용 및 서술이 국제정세 이외에도 국내의 정치적 지형 및 교육과정 변화에 미친 영향 등으로 인해 변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영향 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인 점도 한계이다.

한편, 교과서를 통해 국제사회를 직접 가르치고 배움을 만들어 나갈 교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고 교과서 이면에 담긴 다양한 국제정치 관점과 담론의 전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설계·조직하기를 기대한다. 탈냉전 이후 확장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에 대한 구조적 위기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상호 협력에 기반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던 서술의 경향이 축소되고, 국가 안보와 패권 경쟁에 대한 패러다임이 부각되는 교과서 담론 구조의 재편을 민감하게 파악·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 서술이 강화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국 이익의 추구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으나, 공존과 협력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담론이 축소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Choi & Kim, 2020).

사회과 교과서와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의 모습과 현안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다층적 사고와 분석을 통해 균형적·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지도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구정화, 2023; 김홍탁, 2022). 참여적·실천적 차원의 세계시민성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에서 강조한 부분은 따라서 긍정적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적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넘어 생태적·윤리적·기술적 관점 등 보다 최신의 확장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배움의 활동을 교실 수업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팬데믹, AI 기술 혁신,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경험하였고, 국제관계의 질서도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승주, 2017; 한겨레, 2023.01.03.). 향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슈의 등장과 더불어, 분쟁, 이주와 난민 등 국제사회의 오랜 난제 또한 고민과 해결의 깊이가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를 넘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적극적이고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과 교과서의 본질과 역할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사회과교육의 방향성과 지향점 또한 지속적인 학술적·실천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대현, 은지용(2020). 사회과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와 내용 제시 방식 분석 -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52(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35.
- 강대현, 송민섭, 송미리(2023).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시민교육연구** 55(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47-183.
- 강은진, 황미영, 박선운(2025).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 논쟁문제 분석: 2015 개정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시민교육연구** 57(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67-101.
- 강창숙 외(2022). **중학교 사회2 교과서**. 경기: 비상교육.
- 고경민, 남재우(2025).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신문 기사 분석. **한말연구** 66(4). 한말연구학회. 1-20.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세종: 교육부.
- _____(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 세종: 교육부.
- _____(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세종: 교육부.
- _____(202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 구정화 외(2015).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천재교육.
- 구정화(2023).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질문 분석 - 핵심 질문으로서 가능성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55(2). 한국사

회과교육학회. 1-26.

- 김경수, 김석우(2009).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서술내용 분석. **교과교육연구** 13(2).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79-298.
- 김기정(2019).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 김명정, 김현경(2022). 2022 개정 고등학교 「정치」 교육과정의 개발. **시민교육연구** 54(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27-147.
- 김명정, 박정서(2023). 2022 개정 고등학교 「국제 관계의 이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성찰. **법교육연구** 18(3). 한국법교육학회. 1-23.
- 김상배(2008).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3). 한국국제정치학회. 35-61.
- 김영석(2013).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 국민에서 시민으로 -. **사회과교육연구** 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3-28.
- 김영순 외(2015).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동아출판.
- 김영재 외(2015).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서울: 한국정치학회.
- 김재우, 김동진(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회과 연구 동향 분석: 2000년대 이후의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1(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5-70.
- 김진수 외(2015).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미래엔.
- 김학성(202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00-06.
- 김현미(2023).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9-44.
- 김홍탁(2022).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반도 국제질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교육연구** 54(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3-55.
- 남호엽(2014). 초등 사회과에서 글로벌 단원의 성립과 전개: '상호의존'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6(1). 글로벌교육연구학회. 47-60.
- 문돈(2011). 비교문헌연구: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법. **한국정치학회보** 45(1). 한국정치학회. 265-287.
- 박세훈, 장인실(2018).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도덕과와 사회과의 다문화교육 개념 특성 비교 연구. **초등교육연구** 31(1).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

- 육연구원. 47-72.
- 설규주 외(2022).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동아출판.
- 손영찬 외(2022).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미래엔.
- 신기욱 외(2022). **국제정치 이해**. 서울: 박영사.
- 오지은(2020).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문법 능력 발달 연구 동향 분석.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1-43.
- 우철구, 박건영(2004).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유명철(2018). 제3세대 인권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57(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22.
- 유현석(2025). **국제정세의 이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지구촌의 국제관계(제7개정)**. 파주: 한울아카데미.
- 은지용(2023).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 및 과제. **시민교육연구** 55(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21-154.
- 이동민(2014). 초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6). 대한지리학회. 949-969.
- 이승주(2017).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국제정치논총** 57(4). 한국국제정치학회. 237-271.
- 정선화(2022).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 164. 역사교육연구회. 121-175.
- 조순구(2009). **국제관계론**. 파주: 법문사.
- 최성길 외(2015). **중학교 사회2 교과서**. 경기: 비상교육.
- 최윤정, 윤노아(2023).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세계시민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국제이해교육연구** 18(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43-82.
- 한미경, 윤다인, 최윤정(2019). 노동에 대한 모든 것. **시민교육연구** 51(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01-330.
- 허수미 외(2022).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서울: 천재교육.
- Apple, M. W.(2019). *Ideology and curriculum*(4th ed.). NY: Routledge.
- Armstrong, D. et al.(2012). *Three lenses: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Cambridge

Press.

- Choi, Y., & Kim, Y.(2020). Deconstructing neoliberalism in global citizenship discourses: an analysis of Korean social studies textbooks.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61(4). 464-479.
- Creswell, J. W.(2021).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Doyle, M.(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151-1169.
- Foucault, M.(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Y: Routledge.
- Ikenberry, G. John.(2018).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4(1). 7-23.
- Jimenez, Jeremy David, Julia Lerch, and Patricia Bromley.(2017).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cial science textbook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2(4). 460-476.
- Keohane, R. O., & Nye, J. S.(2012). *Power and interdependence*(4th ed.). MA: Longman.
- Mearsheimer, John J.(2019).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43(4). 7-50.
- Meyer, John W., Patricia Bromley, and Francisco O. Ramirez.(2010). Human rights in social science textbooks: Cross-national analyses, 1970-2008. *Sociology of Education*. 83(2). 111-134.
- Morgenthau, H. J.(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 Waltz, K. N.(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 Wendt, A.(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391-425.
- _____ (2000).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자료>

이코리아. 한미 관세협상, 오래 끌면 누가 유리할까. 2025. 9. 29일자.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65>

한겨레. 2023년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정치. 2023. 1. 3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4297.html>

SBSBiz. [머니줍인] 한국 ‘큰손’자산가, 미국 부동산 투자 급증. 2025. 10. 1일

자. <https://biz.sbs.co.kr/article/20000263468?division=NAVER>

Abstract

**Teaching in a Time of Transition in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s in the Narrative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Ko, Hyerim

(Ph.D Student,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eacher, Korea University Middle School)

Choi, Yoonjung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descriptions of global society and international politics presented in eight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four published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four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holds significance as a common and compulsory subject that addresse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global issues and conflicts under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domain of international politics. Drawing on the three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this study identified key words symbolizing the perspectives and contents through which global society is portrayed. Using text mining,

we analyzed the frequency and patterns of the key words, and further examined the tendencies and changes in textbook narratives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qualitative validation. Th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how global society and international politics are represented and have evolved in textbooks as resources that shap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offe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duc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politics.

Key words : international politics, global society, social studies, textbook, text mining

투고신청일: 2025. 10. 31.

심사수정일: 2025. 12. 14.

게재확정일: 2025. 12. 17.